

# 대학생의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심인옥\*, 남보경, 박마루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 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 through the dating experiences in College Students

In-Ok Sim\*, Bo-Gyeong Nam, Ma-Ru Bak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활 동안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개인이 경험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C 대학교 3,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성 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 1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최종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성 간의 교제를 통해 경험한 내용이 5개의 주제로 '남녀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의사소통의 영역 이해', '갈등 해결 능력의 강화', '감정조절 행동 변화', '인격의 성숙'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의 경험은 다양한 긍정적 의미와 강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추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강화된 능력은 사회생활의 적응과정에서 강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시기에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이 개발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changes in self-awareness in response to dating members of the opposite sex among college students. The point of view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dating, it has put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change in the strength and self-awareness. To accomplish this, interviews of 18 people who met the study criteria were conducted.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Respondents were placed in one of five categories: 'change in perception of role',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skills', 'strengthened coping ability', 'behavioral change in emotion regulation', or 'awareness of self-maturity'. Changes in perceptions experienced by college students through dating were shown to improve the quality of college students' future life and applied in the strength to adapt to social life.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discovered a positive outcome in the individuals' life, trying to present the grounds that to strengthen the various regions.

**Keywords** : change, college students, dating, experiences, perception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학생활의 문화에서는 학교 교과과정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성교제와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교제는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일반적인 친구 관계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각자의 사고와 감정을 통해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1].

\*Corresponding Author : In-Ok Sim(Chung-Ang University)

Tel: +82-2-820-5988 email: hiraly@cau.ac.kr

Received July 26,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Revised (1st September 22, 2017, 2nd October 25, 2017 )

Published November 30, 2017

이러한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은 발달 시기에 따라 다소 정의에 대한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서로 사귀다’라는 표현으로 이성과의 교제를 인식하며,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이성 친구에 대해 특별히 친근하게 지내는 이성의 대상이 존재하면 이성교제를 한다고 생각한다[2]. 이처럼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3], 반면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우정의 개념을 떠나 연인 간에 서로 성적인 감정과 욕구를 느끼며, 때로는 실제 성 행동을 경험한다는 면에서도 이전의 이성교제와는 차별성을 가진다[4].

그러므로 이성교제는 각 발달 시기에 따라 이성교제가 갖는 의미도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기의 이성관계는 즐거움을 주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 후기, 즉 대학생 시기의 이성관계의 경험은 성적 정체성 정립에 도움을 주며 그에 따른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으로서의 경험으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최근에는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결혼을 위한 지속적 관계형성보다도 이성교제 자체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그 시기의 발달과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한샘[6]은 대학생 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다른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감과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진로를 탐색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에 이성교제는 타인과 원활한 관계형성을 경험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통한 극복, 행복감과 불행감을 동시에 느끼며 감성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대학생 자신도 이성교제의 장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성교제를 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사회 문화시설 및 대학 환경에서는 대학생의 효과적인 이성교제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사전에 이러한 과정을 학습하고 배울 수 있게 하려고 이성교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대학생 이성교제의 또 다른 의미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문, 사회경제적인 결맞음을 기반으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중매결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통해 스스로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7]. 이성교제 경험이나 만족도는 결혼 생활의 양상과 관련이 있으며[8],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미래

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실질적인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9]. 또한, 성인 초기의 이성교제는 배우자 선택에 기여하는 정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10].

이처럼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차원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대학생활에 있어서 이성교제는 대학생 한 개인의 발달 과정상, 단순히 결혼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터득하며, 이성에 대한 흥미를 충족시키고, 대인관계 갈등 해결 기술 등 내적 성숙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대학생 시기의 이성과의 관계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성숙한 인격 형성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11]. 또한, 대학생활 중 이성교제는 개인의 인격적인 성숙은 물론 이성과 만남을 통해 자신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잃지 않는 동시에 친밀함을 나눌 수 있고 그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성교제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노력, 사귀는 사람과의 결혼을 예측하거나, 혹은 헤어짐을 결심하는 것과 같은 복잡 미묘한 갈등에 직면하고 이를 타게 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12].

반면 이성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은 이 시기에 이성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더 어려운 혼란을 겪게 되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성교제의 특성상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이 있으므로 이렇게 존재하는 문제들을 타인들과 개방하고 공유하는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된다[13].

이성교제에서 갈등이 있으면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대인관계 및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이는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9], 이성교제를 시작한 미혼남녀에게는 의사소통의 문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14].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남녀 간의 차이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감, 가치관의 차이에서부터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 및 행동 양상에 대한 차이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이성교제 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지만, 부정적 측면을 각 개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지에 따라 강점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교제는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성교제 시 남녀의 차이에 대한 조기 인식, 필요하면 타협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서로의 갈등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는 추후 인생을 살아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이성교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화된 실태조사, 이성교제의 방향, 영향요인, 상관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한 내용으로[12], 대학생이 이성교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고, 행동과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개념화 시킬 수 있는 경험적 연구에 기반된 내용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시기에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며 이성교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예방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한 인식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삶의 구조에서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의 경험 전과 후의 인식변화는 무엇인가?
- 2)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의 경험을 통한 긍정적, 부정적 의미는 무엇인가?

## 2. 본론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더욱 더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S 시 C 간호대학에 재

학 중이며 대학생활 중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심층면담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밀보장 및 익명성,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폐기 등 연구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동의한 참여자로 최종 18명을 선정하였다.

### 2.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참여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와 관련된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훈련받았으며, 질적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공동 연구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면담 기법 및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훈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로서의 준비를 하였다.

### 2.4 자료 수집 및 절차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은 본 연구책임자 1명, 공동 연구자 2명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2일까지 각각 10회기를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생활 보호 및 심도 있는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와 같은 성별의 연구보조자가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였다. 참여자의 편안함을 위해서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여 가능한 충분한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참여자에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로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성교제를 통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비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개인 당 1시간 ~ 1시간 30분정도 소요 되었으며,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참여자가 경험과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참여자에게 구두로 사전 동의를 얻고 모든 면담내용은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여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반복 청취 후 연구자가 필사 하였다. 필사 내용에서 의미가 불충분한 자료는 추가 면담 및 전화를 이용하여 자료를 보충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 및 공동 연구자는 필사된 내용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를 통해 겪은 변화와 성장 경

험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의 규명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선택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14].

첫째, 녹음 후 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서 상황에 대한 무언가를 느끼고자 하였다. 둘째, 원문을 검토하여 유의미한 진술로 파악되는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추출된 유의미한 진술의 의미를 생성하였다. 셋째, 생성한 의미를 주제모음으로 정리하고, 모음과 원문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며 모음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주제를 범주화하여 주제모음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현상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만들어 내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 수행에 대한 목적, 연구결과에 대해 풀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분석

####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이 남자 참여자가 8명, 여자 참여자가 10명이 참여하였다. 전체적인 평균 연령은 21세에서 31세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26세가 6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다. 대

학 입학 후 이성교제 횟수는 2번 이상이 6명, 4번 이상이 6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은 9명이었고, 이성교제의 평균 기간은 대부분 3개월에서 1년 미만이 9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 3.2 대학생 시기 이성교제 경험을 통한 인식 변화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 경험을 통한 인식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참가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 18명에게 존재하는 공통된 범주 및 주제가 존재하는 것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파악된 인식변화의 범주는 총 5개 영역으로 각 범주에 해당하는 주제목록은 6개 항목, 의미 단위는 37개로 파악되었다.

##### 3.2.1 남녀 역할에 대한 이해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를 통해서 경험한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이성교제 경험 전과 경험 후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대학생의 이성교제 경험 전에는 대부분 남자는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의지하고 싶은 대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성교제 이후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남자는 여자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결정의 상황에서 주도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가정적이어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

No	Sex	Age	Number of dating	Be Dating somebody at interview	The average period of dating
1	Female	31	1	Yes	1 year<
2	Male	29	3	No	3month~1year
3	Male	26	4<	No	1 year<
4	Male	25	4<	No	1 year<
5	Male	24	4<	Yes	1 year<
6	Male	26	3	No	>3month
7	Male	26	4<	Yes	3month~1year
8	Female	25	4<	Yes	>3month
9	Female	25	2	Yes	3month~1year
10	Female	28	4<	Yes	3month~1year
11	Female	25	2	No	3month~1year
12	Male	26	2	No	1 year<
13	Female	22	2	Yes	3month~1year
14	Female	26	1	No	1year<
15	Male	24	2	No	3month~1year
16	Female	26	3	Yes	3month~1year
17	Female	25	1	No	3month~1year
18	Female	24	2	Yes	1 year

Table 2. The Change of Self-awarenes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Opposite sex Dating

(N=18)

Categories	Theme	Formulated meaning	
Change in perception of the role	Role expectation before dating	Male	Leading decision-making A comfortable person Economic ability
		Female	Delicate and feminine Courtesy Caring
	Role expectation after dating	Male	Sense of responsibility Leading decision-making
		Female	Polite and homely woman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skills	Important elements in communication	Consideration Honest Patience listening courteously	
Strengthen coping ability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Think objectively Silence and calm Avoiding Situations Specific explanation	
Behavioral change on emotion regulation	Emotion control solution	Crying Getting Out of Situation Change of thoughts and actions Recognize ones as important people	
Awareness of self-maturity	Strengthening factors of integrated maturity	Strengthen understanding Self-reflection Positive thinking Ability to control behavior Interpersonal skills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1.1 이성교제 경험 전 남녀 역할인식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 경험 전 남녀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남자에 대해서는 ‘주도적 의사결정’, ‘의지할 수 있어야 함’, ‘경제적 우위’ 등의 인식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에 대한 기대 및 인식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자’이어야 하고, ‘외적인 여성스러움’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은 ‘예의바름’, ‘보살핌’ 등으로 파악되었다.

“남자가 좀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도 여자에 비해 더 지불해야하고..... 약간 고정관념 식의 데이트 개념이 있겠지만 대학생이 되어서 여자는 꾸미는 시간도 많고 개인적 돈도 많이 들고 하니 그 외 것은 남자가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3>

“이성교제 경험 전 남녀 각각의 역할이요? 둘이 같이 행동을 결정할 때 그것은 남자 쪽에서 좀 더 리드 해야

되고, 여자는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같이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남자를 챙겨주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죠”. <사례 5>

“남자는 (여자의 행동을) 약간 받아줘야 한다고 느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주고, 이해해주고, 화도 좀 참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구요. 여자는 조금 더 챙겨주는 역할?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례 9>

3.2.1.2 이성교제 경험 후 남녀 역할 인식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과정과 이성교제를 경험 한 이후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으로 남자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주도적’인 생각과 행동을 기대하였다. 여자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여성’, ‘예의 바름’, ‘보살핌’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경험하였다.

“오히려 사귀고 나서 더 역할이 나누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나누어진 역할, 인식에 맞춰져

서 뭐라 표현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역할이 분리된 사회의 고정관념, 역할에 맞춰진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 그러나 이성교제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남자는 역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8>

“이성교제 이후 인식변화가 약간 생겼는데요. 남자는 가장으로써 뒷받침되는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라는 개념 때문에 분명하게 다른 역할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남자는 금전적인 부분을 좀 더 뒷받침해야 하고, 여자는 가정적인 일에 대해 좀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례14>

“제 생각은 성에 따라 역할이 나누어지거나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둘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같아요.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챙겨주고, 부족한 사람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상호보완적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례 18>

“요즘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남녀평등의 가치관이 많이 정립되었다고 봐요. 하지만 이성교제의 관점에서는 사실 남녀평등의 관점과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진다는 관점이 서로 공존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통념상 남자는 기본적으로 리드해야하고, 어떤 일에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있고, 여자는 그러한 남자를 잘 챙겨주고... 보듬어줘야 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성 교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거 같아요. 그래야 서로 이해하면서 싸우지도 않게 되고 .....”. <사례 10>

### 3.2.2 의사소통의 영역 이해

본 연구 분석결과 이성 교제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개념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성교제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것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솔직함’, ‘인내심’, ‘경청’ 등으로 나타났다.

“대화 내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황에 따라 솔직한 자세를 보일 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리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대화 방법은 인간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성교제 시 서로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예의라고 생각해요”. <사례 11>

“이성교제 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인데, 혼잣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랑 같이 서로의 얘기를 하는 게 의사소통이고 대화인 거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정확하게 의사전달도 되고, 특히 화가 나서 싸울 때도 상대방에 대해 참아주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경청해주는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은 모두 사람이 이어갈 수 없는 행동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 같아요”. <사례 13>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화할 때 성향이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는 잘 알아채지 못하기도 하고, 또 돌려 말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사소한 부분으로 화가 난 경우라도 슬쩍 넘어가면 오히려 오해도 커지고 그로 인해 싸움도 커지는 거 같아서, 그럴 때 일수록 솔직함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기대하는지 잘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18>

### 3.2.3 갈등해결 능력의 강화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것으로 서로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도래하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위기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난 방법으로는 ‘문제 객관화시키기’, ‘침묵과 진정하기’, ‘상황을 회피하기’, ‘대화로 이해시키기’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대처해 나간다고 하였다.

“갈등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때 있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면, 서로 기분만 상하고 갈등상황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럴 때일수록 갈등상황을 일으킨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순간 들었던 감정들도 조금 누그러지고,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입장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 1>

“상대방과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기분을 푸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내 대화를 들어줄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잠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기분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력해요. 이성교제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된 거 같아요. 교제하면서 다툼이나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좀 더 원만하고 빠른 갈등 해결 방법을 알게 된 거 같아요. 제 스스로에 대한 행동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사례 14>

“일단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혼자 생각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시간이 지난 후 직접 만나서 대화로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크게 싸우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성교제 전에는 싸움과 화해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성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랬어요”. <사례 17>

### 3.2.4 감정조절 행동변화

본 연구 분석결과 이성교제 시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행동 양상은 대부분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혼자 울거나 참고 견뎌’, 또한 ‘행복한 활동으로 전환’, 그리고 ‘상대방의 중요성 재인식’ 등의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일단 갈등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제일 먼저라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문제가 일어난 그 상황과 장소에서 벗어나는 게 전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 자리 그 상황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서로의 감정도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시간을 좀 두고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감정이 누그러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례 6>

“너무 속이 상하는 상황이면 눈을 좀 감고, 생각을 분산시키죠.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야 감정이 차분해지니까요.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상황을 벗어나 버리죠”. <사례 2>

“분노의 감정이 들 때, 우선 제가 상대방과 만나는 이유를 생각하고, 난 이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나는 거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상기를 해요. 이 상황이 싫은 거지 상대방이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례 5>

### 3.2.5 인격의 성숙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인식하였다. 자신에 대해 성숙되었다고 보는 관점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성찰’, ‘긍정적 사고’, ‘행동에 대한 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과 관련된 부분이 성장하고 강화되어 스스로에 대해 인격적으로 성숙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예전에는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컸는데, 그런 성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본받고, 저러면 안 되겠다는 점은 안 하게 되었어요”. <사례 4>

“음 뭐랄까요……. 좀 더 남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욱 더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된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8>

“아무래도 이성과의 만남이어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많아진 거 같아요. 내 위주로 살아가던 방식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좀 더 바뀐 거 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관대해져야 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들을 수용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제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례 10>

##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한 자기의 인식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5개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의사소통의 이해’, ‘갈등 대처 능력 강화’, ‘감정 조절 행동변화’, ‘인격적 성숙’ 등 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미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고정적인 성 역할 즉, 남녀 간에 서로 기대하는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재탑[15]에 따르면, 이성교제 시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은 남녀 간의 차이이며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 가치관의 차이에서부터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이성관계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기대와 성향을 가지고 있어[16], 이성교제를 통해 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서로에 대한 욕구와 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 할 뿐만 아니라, 이성교제를 통해 남녀 관계에 대한 역할이나 가치관 등을 배우는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 기회로 설명하고 있다[18].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성의 교제과정에서 기존의 남녀 역할에 대한 파악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우선적으로 서로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효과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재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성교제 전 남자의 역할은 사회 혹은 가정에서 교육 받아온 데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 기댈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하는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이성교제를 경험한 이후에는 보다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이 있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변화는 교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감과 여성이 수동적인 자세로 남자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남성들은 이성교제 경험 전 여자의 역할로 기대하는 것은 세심하게 배려하는 여성, 외적인 여성스러움, 보살핌의 역할이었지만 이성 교제 이후 여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전반적인 개념을 포함한 가정적인 여성의 행동이 중요한 역할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에서의 이성교제는 성인의 과정으로 입문하게 되는 것으로 결혼이 현실적으로 인식되어 가정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녀에게 존재하지만, 각자의 특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서로 상호보

완적인 역할을 교류하는 것이 남녀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여성들의 사회적 능력 향상, 개방된 연애와 결혼관의 변화 등이 이성교제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둘째, 의사소통의 영역 이해에 대해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의사소통에서의 중요성은 대체로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만 다뤄졌다. Bienvenu와 McClain[19]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기 위해" 그리고 "감정과 의미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인 총체"라고 그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김경희[20]는 의사소통은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며 의사소통의 수준은 사람간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이 여러 사람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므로 이성교제라는 대인관계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한 개인과 한 개인, 즉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성간의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 중요한 요인들을 이성교제를 통해 이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이성교제 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의 유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이 이성 간에 중요하다고 설명한 장준미[21]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론적 근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경희[20]는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대학생일수록 이성교제에 있어서 문제 발생 시 긍정적인 해결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통해 갈등 대처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효과적인 갈등 대처방법으로 객관화시키거나, 침묵하고 진정하기, 상황으로부터 회피,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는 Laursen과 Collins[22]의 연구결과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르며,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되도록 갈등을 피하려 하며, 서로 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을 하거나 화해 및 보류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강진희

[23]는 이성관계는 다른 사회적인 관계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관계이므로 갈등의 해결방법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장준미[21]도 갈등의 해결방법이 이성교제 사이의 관계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성교제간 갈등 해결 방법의 중요성을 또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예나와 김정택[10]의 보고에서는 애착의 관계가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들고 있는 의미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생들은 사랑과 애착 같은 감정적 면보다는 문제를 객관화 시켜 좀 더 냉정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파악하도록 하거나, 침묵과 감정 진정시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결과로 이와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부분에서는 강진희[23]의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방법은 부정적인 해결 유형으로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을 무시하거나 회피한다면 결국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성교제에서의 갈등 자체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성교제에서 갈등 발생 횟수와 더불어, 부정적인 갈등 해결 방법이 연애 만족도를 매우 떨어뜨린다는 Crammer[2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황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갈등 대처의 경험적인 결과와는 반대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감정 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이설아[25]의 연구에서 중요한 대상이 자신을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어려움이 크다는 근거를 통해 이성관계에 있어서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긍정적 조절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에서 경험한 감정 조절 방법으로는 상대방과의 대화, 다른 활동을 통한 생각의 전환과 상대방의 중요성 재인식 등의 방법들이 있다.

서미례[11]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는 다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감정이 개입되는 새로운 관계”라고 하였다. 더욱이 각 개인의 감정 조절 방법은 자라온 환경과 성향에 따라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 시의 감정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오히려 “감정” 자체를 표현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승현[26]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통해 생겨난 높은 수준의 분노는 난폭한 말투와 행동으로 감

정이 표출되면 오히려 적대감과 공격을 유발하여 대인관계 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며, 이성교제에서의 문제점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27].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 참여자들은 오히려 상대방과 감정표현을 위해 대화로 해결을 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고 자제 할 수 있고 공격적 행동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속으로 삭임’이나 ‘그 자리를 벗어남’, ‘울음’과 같은 답변은 부정적인 감정조절방법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러한 감정조절방법들이 효과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 조절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성관계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절하고 행동을 자제하게 되는 경험은 대인관계, 즉 교우관계, 가족관계 및 사제적 관계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23].

다섯 번째, 본 연구결과에서 마지막으로 분석된 범주인 ‘인격적 성숙’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성교제의 교제의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부분은 여러 긍정적, 부정적 상황으로 부더의 학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강화되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긍정적인 사고, 자신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조절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한 개인만이 아닌 친밀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진희[23]의 의미 있는 대상과의 관계는 대학생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신수빈[28]의 연구에서도 친밀한 관계인 대인관계는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도록 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과 의식 수준을 변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미례[11]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의 시기에 경험하는 이성교제는 반대의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본인 스스로 성숙한 인격 형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영역으로 이성교제를 통한 인식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되는 것은 선행연구결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긍정적인 내용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개념도 도출되었다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랑이 갈등 해결 전

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와는 다르게 객관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성관계에서의 갈등 시 감정 표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선행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오히려 감정 표출을 통해 감정의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교훈이 된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과정을 통해 파악된 부분은 대학생들의 이성교제를 통해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인식변화, 자아개념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 이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한 부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 5. 결론

최근에 대학생은 대학환경의 구조 및 이성적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남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과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에 대한 관심과 교제의 양상은 성장발달 단계별로 다른 의미가 있지만 특히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는 발달 과업적인 측면에서 초기 성인기에 속한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서 한 인간의 성숙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성교제과정에서 심층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며,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된 인식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특히 대학생시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 18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준비된 개방적 질문내용을 기준으로 개인별 인터뷰를 통한 필기내용, 녹음 등을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질적 분석과,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대학생이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한 부분은 총 5개의 범주로 ‘남녀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의사소통의 영역 이해’, ‘갈등 해결 능력의 강화’, ‘감정조절 행동변화’, ‘인격의 성숙’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를 통한 인식 변화에 따른 경험은 대부분 많은 영역에서 추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강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의 이성교제의 경험은 개인의 삶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다양한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인식을 변화시켜 개인적 삶과 사회적 관계를 위한 성숙과정에 필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I. K. Kim,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to enhance students' sense of self-efficacy in forming a male-female relationship and verification of the program effect",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 W. B. Ahn, J. G. Lee, Y. H. Kim, "The Comparison of Psycho-Social Environment Betwee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14, no. 2, pp. 59-65, 2002.
- [3] J. H. Kim, D. W. Jeong, "The Effect of Romantic Relationship on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17, no. 3, pp. 19-31, 2008.
- [4] S. H. Cho, "A study on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Dating". Myongji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1.
- [5] E. Y. Park, "Study on the Concern with Teenagers' Intersexual Friendship and Sexual Behavior".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6] H. S. Lee,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Task and Adjust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Yonsei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4.
- [7] I. S. No, "Spouse Satisfaction of Korean Urban Married Men and Women: individual, Environmental, and interaction Factors". Korea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2.
- [8] N. R. Kim, "The effect of attachment on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n college students' romantic relationship : mediated by Negative Mood Regulation".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9] J. W. Sung,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Couples' Family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ving Strategies 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ctor and Partner Effect". Ewh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10] Y. N. Kim, J. T. Kim, "The Relations among Adult Romantic Attachment, Love Attitudes and Courtship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pp. 24-28, 2008.
- [11] M. R. Seo,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Types in University Students". Ko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12] M. Y. Kim, "A Study on the Dating and family variables among university students". Ulsa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13] M. J. Kim, "A Study about Dating Communi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Youth". Jin 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4] Y. H. Choi,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Soomoonsa: seoul, 1993.
- [15] J. R. Lee, S. W. Ok, K. H. Lee,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Program for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Dating Relationship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0, no. 5, pp. 37-49, 2002.
- [16] F. M. Cancian. "Love And Power: Types Of Marriage In The US". pp. 215-243, Urban Anthropology and Studies of Cultural Systems and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86.
- [17] Y. J. Kim, D. S. Kim, "Variables that Affect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1) Focused on inflict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7, no. 10, pp. 27-42, 1999.
- [18] C. Hazan, P. Shaver, "Romantic lover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511-524, 1987.
- [19] M. J. Bienvenu, S. McCla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2, pp. 344-345, 1970.
- [20] K. H. Kim,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Communication Style and Stress Coping on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n Romantic Relationship".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21] C. M. Chang, "The Effects of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Seoul Women's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1.
- [22] B. Laursen. WA. Collins,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p.197, 1994.
- [23] J. H. Kang, "The Relationship among Types of Dating, Emotional Experience, Conflict Resolving Strategie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Myongi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24] D. Crammer,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vol. 134, no. 3, pp. 337-341, 2000.  
DOI: <https://doi.org/10.1080/00223980009600873>
- [25] S. A. Lee, "Effects of abandonment schema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 mediation effects of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The Catholic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26] S. H. Lee, "Ther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nger Ex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7] G. R. Kim, Y. J. Kim, I. A. Byoun, E. S. Lim, E. S. Choi,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Heterosexual". Family Management Research, vol. 12, pp. 101-115, 1993.
- [28] Soo. Bin. Shin. "A Qualitative Study on the growth following romantic relationship Break up of college students".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심 인 옥(In-Ok Sim)**

[정회원]



- 1999년 2월 : The University of Sydney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특수 및 만성질환 아동간호, 유머증제, 예술 간호증제

**남 보 경(Bo-Gyeong Nam)**

[준회원]



- 2017년 3월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졸업

<관심분야>

성인, 노인재활 간호

**박 마 루(Ma-Ru Bak)**

[준회원]



- 2017년 3월 :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졸업

<관심분야>

응급간호, 정신간호